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유교문화연구소] SUNGKYUNKWAN UNIVERSITY	보 도 자 료	
	담당	
	참조	
	참조	

[자료문의] 동아시아학술원 유교문화연구소 김자림 (02-760-0788, 010-9219-7850)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 국립국악원 공동주최 동계학술대회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유교문화연구소(소장 신정근 교수)와 국립국악원(원장 김해숙)은 1월 23일(토) 「융합의 시대, 동아시아 ‘유교’미학의 활로를 찾다」란 주제로 동계 공동학술대회를 국립국악원에서 개최한다.

유교문화연구소는 유교와 학제간 연구, 유교윤리의 현대화를 선도해오면서 국내유일의 외국어 유교관련 학술지 국제판 『유교문화연구』, 『유교사상문화연구』를 발간하고,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유교 문화와 사상 관련 학술회의를 개최, 국내외 유교문화연구의 내실을 다지는 데에 기여해 왔다. 또한 국립국악원은 우리의 전통예술이 현대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한국문화와 한국인의 일상 속에 정착시키려고 하면서 세계에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해왔다.

이번 공동학술회의는 국내의 대표적인 유학연구와 국악문화의 진흥을 선도하는 기관인 유교문화연구소와 국립국악원이 공동주최하는 데에 큰 의의를 지닌다. 특히 유교문화연구소와 국립국악원이 처음으로 공동주최로 개최하는 학술회의인 만큼 동아시아 미학과 예술을 폭넓게 연구해온 국내 학자들이 미학, 전통미, 회화, 민화, 서원건축, 국악, 왕실의례, 복식 등에 걸쳐 다채로운 분야의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이번 공동학술회의 발표에는 국내의 동아시아 미학과 예술에 괄목할만한 연구와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표해온 학자들이 대거 참여하게 되어 활발한 논의와 토론이 기대된다.

먼저 동아시아 유교와 논어 연구를 비롯, 동아시아미학 영역을 새롭게 발굴 개척하고 있는 국내의 대표적인 유교 연구자 신정근 교수(성균관대), 다년간 한국미의 본질을 지속적

으로 탐색, 연구해온 민주식 교수(영남대), 동아시아 미학 연구로 널리 알려진 조민환 교수(성균관대), 중국화론분야에서 업적을 쌓아온 조송식 교수(조선대), 조선시대 국악과 유교사상과의 관련성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발표해온 송지원 교수(국립국악원), 조선시대 서원의 건축공간 대한 연구로 알려진 김왕직 교수(명지대)가 참여, 다양하고도 깊이 있는 주제를 통해 동아시아의 미와 예술의 창출에 관련된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본 학술대회는 이처럼 국내에서 동아시아 미학과 예술 분야에서 연구해온 기초발표(1편)와 주제발표(9편)로 10인 학자들이 참여하는데 발표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기초발표를 하게 될 **신정근 교수(성균관대학교)**는 「동아시아의 예술, 공간/세계의 창출」에서 동아시아 예술이 어떻게 학문, 정치, 경제의 영역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영역(세계)을 개척해왔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원전 10세기에 중국 주나라시대에서 시를 통해 찾아냈던 문예의 영역과 학문과 정치 영역에서 답보 상태에 있던 한계를 선구적으로 돌파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 18세기 조선의 예술에 담긴 의의를 해명하려고 한다.



민주식 교수(영남대학교)는 「유교와 한국미」에서 한국인의 미의식에 영향을 미친 유교사상을 생활과 예술의 측면에서 논하고, 특히 선비들의 시서화의 문예생활과 일반서민문화에 나타난 유교적 삶의 미학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미의 정체성을 유교와 관련해 모색하고자 한다.



조민환 교수(성균관대학교)는 「유가(儒家)의 '성중형외(誠中形外)' 사유에 나타난 상덕미학(象德美學)」에서 유가는 마음에 축적된 기운은 그대로 '몸'으로 나타난다는 몸의 미학을 전개한다는 점을 살펴보고 특히 덕의 기운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점에서 상덕(象德) 미학의 특징을 해명하려고 한다.



조송식 교수(조선대학교)는 「동아시아 예술론에서 유가 문질(文質)론의 수용과 변환」에서 동아시아 예술론의 발전에서 유가 사상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유가의 문질론의 변화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적 인격 세계를 말하는 공자의 문질론과, 시대적 취향의 변천으로서 문질론이 예술론에서 하나로 융합되어 동아시아 예술론에서 근간이 되고 있음을 해명하려고 한다.



송지원 교수(국립국악원)는 「왕실의례와 유학사상」에서 조선왕실에서 오례(五禮)를 기반으로 하여 행해진 각종 왕실의례에 담긴 유학사상을 논의한다. 특히 천지와 조상, 성현에 대해 예를 표하는 왕실의 제사의례에 담긴 유학사상이 인간과 하늘, 땅과 어떠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김왕직 교수(명지대학교)는 「조선시대 기호학파의 경기도 서원 건축」에서 17세기 조선사림의 주자대전 묘침제(廟寢制)에 대한 수용과정이 율곡과 퇴계계열의 인식차이에 따라 차별성을 낳았고, 이러한 차이가 서원건축에서 확연히 나타난 사실에 주목한다. 배치에서도 기호서원은 동서재를 강당 뒤에 두는 전당후재(前堂後齋)형인 반면 영남서원은 이와 반대였다는 사실을 통해, 이러한 사상적 맥락과 건축의 미학적 해석이 경기도 서원건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숙희 연구원(국립국악원)은 「유교사상의 관점에서 본 궁중제례 연주 복식(服飾)의 변화-개화기 이후 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에서 개화기 이후 일제강점기까지 종묘제례악과 문묘제례악의 등가·헌가 악공과 악생 복식, 문무와 무무의 일무 복식을 중심으로 복식 구성 요소별 형태, 색상 등의 변화 시기와 배경을 살펴본다. 이는 전통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궁중제례 복식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정희 연구원(서울대학교 국립국악원)은 「궁중의 의례와 음악의 중개자, 협률랑(協律郎)」을 통해 궁중의례에서 중요한 역할을 협률랑의 역할과 의미를 짚어본다. 음악의 연주와 그침을 지시하여 궁중의 의례와 음악이 적절하게 배합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한 협률랑의 세계를 살펴본다.

김미영 연구원(성균관대학교)은 「전쟁과 춤」에서 ‘전쟁’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주목, 동아시아 춤의 창작과 전승의 관련성을 증명, 춤의 역사를 전쟁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안호숙 연구원(사)인문예술연구소은 「민화(民畵) ‘문자도(文字圖)’에 함의된 유교이념 구현-염치(廉恥)를 중심으로」에서 유교의 사상이 서민생활예술에 어떻게 반영되고, 민화 문자도에 드러나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교가 사대부 사회의 전유물이 아니라 서민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쳤고, 또 민화 문자도가 유교사상을 드러내는 한 양식이었던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학술대회의 지정토론자로는 임태승(성균관대학교), 이인범(상명대학교), 김재경(조선대학교), 김종수(서울대학교), 송혜진(숙명여자대학교), 조재모(경북대학교), 이종숙(강원대학교), 이민주(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등이 참석하여 토론을 진행하게 되어 활발하고 생산적인 논의가 기대된다.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6년 1월 23일(토) 10:00~18:00
- 장소 :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

□ 별첨

1. 2016년 동계학술대회 일정표
2. 발표논문 요약문
3. 발표자 사진(5인)

일 시	발 표 및 내 용	비 고
1월 23일 (토)	10:00~ 10:20 개회사: 신정근 소장(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축 사: 김해숙 원장(국립국악원 원장)	사회: 송지원 (국립국악원 실장)
	10:20~ 10:50 1. 주 제: 동아시아의 예술, 공간/세계의 창출 기조발표: 신정근(성균관대학교 교수)	
	10:50~ 11:20 2. 주 제: 유교와 한국미 발표자: 민주식(영남대학교 교수) 토 론: 이인범(상명대학교 교수)	
	11:20~ 11:50 3. 주 제: 유가(儒家)의 ‘성중형외(誠中形外)’ 사유에 나타난 상덕미학(象德美學) 발표자: 조민환(성균관대학교 교수) 토 론: 김재경(조선대학교 교수)	
	11:50~ 13:10 점 심	외부식당
	13:10~ 13:40 4. 주 제: 동아시아 예술론에서 유가문질론의 수용과 변환 발표자: 조송식(조선대학교 교수) 토 론: 임태승(성균관대학교 교수)	사회: 임종수 (유교문화연구소)
	13:40~ 14:10 5. 주 제: 조선시대 기호학파의 경기도 서원 건축 발표자: 김왕직(명지대학교 교수) 토 론: 조재모(경북대학교 교수)	
	14:10~ 14:40 6. 주 제: 민화 ‘문자도’ 에 함의된 유교이념 구현 -염치(廉恥)를 중심으로 발표자: 안호숙(사)인문예술연구소 선임연구원 토 론: 김정은(사)인문예술연구소 선임연구원	
	14:40~ 14:50 휴 식	
	14:50~ 15:20 7. 주 제: 왕실의례와 유학사상 발표자: 송지원(국립국악원 실장) 토 론: 김종수(서울대학교 연구원)	
	15:20~ 15:50 8. 주 제: 궁중의 의례와 음악의 중개자, 협률랑(協律郎) 발표자: 이정희(서울대학교 박물관 연구원) 토 론: 송혜진(숙명여자대학교 교수)	
	15:50~ 16:20 9. 주 제: 전쟁과 춤 발표자: 김미영(성균관대학교 연구원) 토 론: 이종숙(강원대학교 겸임교수)	
	16:20~ 16:50 10. 주 제: 유교사상의 관점에서 본 궁중제례 연주복식의 변화-개화기 이후 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 발표자: 이숙희(국립국악원 학예연구사) 토 론: 이민주(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	
	16:50~ 17:00 휴 식	
	17:00~ 17:40 종합토론	
	17:40~ 18:00 폐 회	
	18:00~ 19:00 만 찬	외부 식당
	19:00~ 20:30 공 연	국립국악원

【 발표 1 】

동아시아의 예술, 공간/세계의 창출

신정근(성균관대학교 유학동양학부)

예술적 활동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감성은 인류의 출현과 더불어 있었다. 다만 그 활동과 감성이 언제부터 학문의 틀로 포착될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동아시아 사회도 일찍부터 진리와 선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미를 탐구해왔다. 그 과정에서 미의 형식과 특성, 예술의 가치와 방향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존재해왔다. 이 글에서는 예술이 학문, 정치, 경제의 영역과 구분되는 —상대적이든 절대적이든— 독자적인 영역(세계)을 개척해왔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원전 10세기에 주나라시대에서 시를 통해 찾아냈던 문예의 영역과 18세기 조선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찾아냈던 독립 공간으로 예술의 영역을 밝혀내고자 한다. 사실 18세 조선의 예술은 학문과 정치 영역에서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던 한계를 선구적으로 돌파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탈출구와 비상구였다고 할 수 있다.

【 발표 2 】

유교와 한국미

민주식 (영남대대학원 미학미술사학과)

유가에서는 예술이 예술로서의 실질적인 미를 갖추는 것 이상으로, 그것이 사회와 도덕에 대해 어떠한 의의와 효용을 갖는지를 중시한다. 유가에서는 자주 인격과 재능의 빼어남을 ‘미’라는 말로 평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오늘날까지 유교정신이 가장 뿌리 깊게 정착되어 있는 나라이다. 한국인은 오랫동안 삼강오륜의 유교윤리를 바탕으로 생활해왔다. 유교에서의 교육목표는 선비양성에 있었으며, 선비들은 시·서·화를 벗 삼아 교양을 쌓았으며, 이를 통해 수기(修己)하고 교우(交友)하고 충절(忠節)하였다. 유교는 절도와 예법으로 인간의 감정을 억제하고 이상적 생활을 강조하였다. 일반 서민층에는 시서화가 보편화되지는 않았던 반면, 그 대신 민화가 널리 보급되었다. 민화 가운데에 특히 삼강오륜이 간추려진 효제도(孝悌圖)와 실내에 장식된 책거리 그림(書架圖)은 양반계층과 서민대중이 함께 향유할 수 있었던 유교사회의 산물이다.

유교사상은 한국인의 미의식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 유교는 생활미학과 인격미학을 형성하였다. 건축에서 주거공간에서의 공간구획을 비롯하여, 별서, 사당, 문묘 등의 구조와 배치 등에서 정돈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언행록」은 인격의 미학이 형성되는 지침을 알려주는 저술이다. 비록 체계적이지는 않지만 내용적으로는 정돈된 통합성을 보여주는 가운데, 미적 인격형성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전해주고 있다. 이를테면 퇴계의 언행록은 그의 학문과 생활의 실천을 보여주면서 삶의 미학을 제시하고 있다.

동양에서는 고대로부터 사대부가 반드시 체득해야 할 기술 즉 ‘예(禮)·악(樂)·사(射)·어(御)·서(書)·수(數)’라고 하는 ‘육예(六藝)’가 있었다. 그 밖의 기술을 잡예(雜藝)라고 불렀다. 당송 시기에 사대부가 회화에 관여하는 사례가 많아져, 회화가 ‘시문서화(詩文書畫)’로서 사대부에게 필수적인 기술 가운데 하나가 되어 앞에서 말한 육예와 잡예는 경계가 애매해지기 시작하였다. 여하튼 동양과 한국의 예술을 생각할 때 ‘시문서화’가 중심이 되고 있고, 예술이론도 사대부에 의한 사대부를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 사대부로서의 교양 즉 고전이 전제되고 있다.

【 발표 3 】

동아시아 예술론에서 유가의 문질론(文質論)의 수용과 변환

조송식(조선대학교 미술학과)

동아시아 사상에서 유가는 그 근간을 이룬다. 그러나 동아시아 예술에서는 유독 도가사상이 강조되어 왔다. 물론 유가의 말기론, 교훈주의, 도구주의가 강조되었지만, 창작론에서는 도가사상이 그 중심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새겨졌던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동아시아 예술론의 발전에서 유가 사상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밝히는 것이다. 그것은 유가의 문질론의 변화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유가의 문질론은 이상적 인격 세계를 말하는 공자의 문질론과, 시대적인 취향의 변천으로서 문질론이 있다. 이 두 문질론은 예술론에서 하나로 융합되어 동아시아 예술론에서 근간이 되고 있음을 살펴보는 것이다. 그것은 크게 ‘예악(禮樂)’, ‘자성일가(自成一家)’ ‘법(法)과 변(變)의 통일’, ‘고(古)와 금(今)의 통일’ ‘예술의 전형성’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 발표 4 】

유교사상의 관점에서 본 궁중제례 연주복식의 변화 -개화기 이후 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이숙희(국립국악원)

개화기 이후 일제강점기까지는 그 어느 때보다 변화가 많았던 시기이다. 궁중음악 분야도 예외가 아니어서 짧은 기간 동안 악제 등의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생겼고, 제례 연주복식 제도도 변화된 내용 중의 하나이다. 궁중제례 연주 복식은 조선초기 이후 약 400여년 전승되어 오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부분적인 변화가 있었으나, 개화기 이후 일제강점기 사이의 짧은 기간동안의 변화는 그 이전 어느 시기보다 그 폭이 크고 잦았다. 이 논문에서는 개화기 이후 일제강점기까지 종묘제례악과 문묘제례악의 등가·헌가 악공과 악생 복식, 문무와 무무의 일무 복식을 중심으로 복식 구성요소별 형태, 색상 등의 변화 시기와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종묘 제례 등가·헌가 악공 연주자 복식 중 비란삼은 『종묘의궤』 이후 홍주의로 바뀐 뒤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고, 백주중단·백주고에 관한 기록은 『종묘의궤』 이후로는 보이지 않는다. 대(帶)는 백주대, 색조대, 흑사대, 남사대 등 가장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 이 외에 백포말과 오피리 등 양말과 신발은 일절 변화되지 않았다. 즉 삼은 의로 바뀌고, 속에 받쳐입는 옷은 생략되고, 대는 여러 가지 색과 재료로 변화되는 과정을 거쳤으나, 관(冠), 말(襪), 리(履)는 전혀 변화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종묘제례악 등가·헌가 악공 연주복식에 있어서 논의의 대상이 되는 문제는 대(帶)의 문제이다. 『종묘의궤』에 색조대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이후 다시 백주대로 돌아왔으므로, 종묘제례 연주복식의 대는 백주대의 전통이 내려왔다고 할 수 있는데, 개화기 이후 일제강점기 이전 어느 시기에 어떤 계기로 남사대로 바뀌었는지를 밝혔다.

일무 복식에도 변화가 생겼는데, 『조선악개요』의 광무 원년(1897) 기록에 진현관은 복두로 남주의는 홍주의로, 적말대는 남사대로 변화되어 있다. 즉 관(冠)은 보태평과 정대업 모두 복두로 바뀌었을 뿐 아니라 보태평과 정대업의 차이가 없어졌고, 남주의가 홍주의로 바뀌고 대가 적말대에서 남사대로 바뀔에 따라 등가·헌가 연주자의 복식과 구별이 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종묘제례 일무 복식과 관련하여 의(衣)·관(冠)·대(帶)의 변화가 언제 어떤 계기로 생기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을 밝혔다.

문묘제례 연주복식은 비란삼이 인조조에 홍주의로 변화되고 백주중단과 백주고가 제외되는 경우 외에는 모두 그대로 전승되어 왔으나, 현재는 백주대 대신 남사대를 착용한다. 따라서 문묘제례 연주복식에 있어서 밝혀야 할 과제는 백주대가 어느 시기에 어떤 계기로 남사대로 바뀌었는지를 밝혔다. 문묘제례악 일무 복식은 『조선악개요』의 광무 원년(1897)조에 문무는 진현관과 피변은 복두로, 조주의는 홍주의로, 금동혁대는 남사대로 바뀌었고, 대정 6년(1917) 기록에는 다시 복두는 문무에는 진현관, 무무에는 피변으로 변화되었다. 문묘제례 일무 복식의 변화와 관련하여 검은색의 조주의가 언제 어떤 계기로 붉은색의 홍주의로 변화되었는가 하는 점과, 관이 모두 복두로 바뀌었다가 일제강점기인 1917년 기록에 왜 다시 본래의 형태인 진현관과 피변으로 돌아갔는가 하는 점, 그리고 금동혁대는 언제 어떤 계기로 남사대로 바뀌었는지에 대해 논하였다.



신정근 교수
(성균관대학교)



민주식 교수
(영남대학교)



조민환 교수
(성균관대학교)



조송식 교수
(조선대학교)



송지원 교수
(국립국악원)

